

사회

효자 양학선 “부모에 새 집, 꿈 이뤘다”

가족 고창서 비닐하우스 생활 SM그룹 2억 아파트 기증키로



양학선 선수의 부모 양관권(53·오른쪽)·기숙환(43)씨가 6일 오후 고창군 공음면 남동마을을 비닐하우스 집에서 아이들의 금메달 획득과 한 기업의 아파트 기증 소식에 미소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올림픽 체조(도마) 금메달리스트 양학선(20·한국체대)이 두 개의 ‘꿈’을 한꺼번에 이뤘다. 우리나라 체조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품에 안고, 비닐하우스에서 살고있는 부모에게 평생소원이던 새집을 선물하게 됐다.

6일 오후 양 선수의 부모 양관권(53)·기숙환(43)씨가 살고 있는 고창군 공음면 남동마을을 찾았다. 양 선수의 부모는 검정색 차광막이 덮인 150㎡ 크기의 비닐하우스에서 취재진을 맞았다.

이들은 양 선수가 광주체고를 졸업할 때까지 광주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3월 이곳으로 이사왔다. 미장일을 하던 아버지 양씨의 어깨 인대가 끊어지고, 어머니 기씨마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져서 힘겹게 내린 결정이었다.

이곳에 터를 잡은 부부는 비닐하우스를 절반으로 나눠 겨우, 닭, 칠면조, 흑염소 등 가족 100여 마리를 키우고, 2000여평의 땅에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올 초에는 양 선수와 양 선수의 형(23)이 돈을 모아 1000여평의 땅을 더 사왔다.

양 선수의 가족들에게 집은 ‘꿈’이었다. 단칸 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부모는 지난 20년 동안 8방이나 집을 옮겨다녔다. 유덕동, 광천동, 마북동 등 번두리 지역의 전세방에 살면서 내집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양 선수는 그동안 각종 세계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태릉선수촌에서 매달 받고 있는 60만~100만원의 훈련수당을 어머니 기씨에게 보내왔다.

또 항상 집을 찾으면 아버지와 유일한 취미인 낚시를 하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번듯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임버터처럼 말했다. 그리고 지난 6일 밤 금메달을 딴 뒤 인터뷰에서 “엄마, 아빠 진짜 집을 지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7일 새벽 2시께 어머니에게 건 짧은 전화에서도 “엄마 나 시험 잘했어. 금메달 땀어. 우리 집 짓자”라고 울먹였다.

그런 양 선수의 가족에게 새집이 생겼다. 양 선수의 가족이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M그룹(회장 우오현)이 현재 남구 월산동에 짓고 있는 우방아이유셀 35평형 아파트 한 채(시가 2억원)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광주시에 전달한 것이다.

광주시와 SM그룹은 양 선수 가족과 협의의

거쳐 양 선수가 귀국하는 대로 광주시청에서 기증식을 할 예정이다.

7명 남짓한 방에 잔뜩 걸린 양 선수의 사진과 가족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어머니 기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제대로 된 보약도 하나 못 해 먹었는데, 학선이 덕분에 우리집을 갖게 됐다”고 울먹였다. 이어 “학선이 초등학교 때부터 후원해준 고마운 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후배들을 지원하고 꿈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김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의 청년 양학선이 올림픽 출전 사상 52년 만에 최초로 체조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148만 광주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야간 침몰 어선 선장 여수해경, 극적 구조

한밤중 암초에 부딪쳐 침몰하는 어선의 선장이 해경에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은 7일 새벽 1시53분께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역만도 앞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대양호(4.59t, 고흥선적)에서 선장 김모(46)씨를 구조했다.

전날 오후 1시께 외출뒤사로 삼치를 잡으러 나르도항을 출항한 대양호는 조업 후 역만도 근처에서 휴식하려 닻을 놓았다가 기상이 나빠지면서 닻이 끌려 암초에 좌초돼 침몰했다. 김 선장은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렸고, 여수해경 측이 경비임무 중인 500t급 경비함을 급파, 새벽 2시15분께 선장을 옮겨 태웠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우즈베크 동거남 추방되자 아이 버려

서부경찰, 40대 여성 검거

이주 노동자 동거남이 강제추방 당하자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개월된 아이를 내다버린 40대 여성(본보 7일자 6면)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여·41)씨는 지난해 익산의 공장에서 일하던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불법체류자 A(43)씨를 알게 됐다.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급기야 동거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씨가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본국으로 강제 추방돼 버렸다. 정씨의 몸에는 A씨의 아이가 자라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6월 정씨는 익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혼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3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정씨로서는 갖 태어난 아들까지 키우면서 생계를 잇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정씨는 지난 5월 밤 7시 45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교회 주차장에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내다 버렸다. 그리고 옷, 젖병 등과 함께 “죄송하다. 아이를 해외에 입양시켜 달라”는 편지를 남겼다. 정씨는 경찰에서 “너무 막막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원침 (8626) 김종두



밀실 설치 성매매업주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7일 밀실을 설치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속칭 허브숍 업주 이모(53)씨와 여중업원 4명 등 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건물에 ‘OO허브숍’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열고 여중업원 4명을 고용, 남자 고객들을 상대로 1차례에 13만원의 비용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김대성기자 bigkim@

무더위에 점퍼 입고 마트서 절도

○광주 서부경찰은 7일 대형마트에서 점퍼 등의 주머니에 훔친 물건을 숨기는 행위를 일삼아 온 혐의로 각모(35)씨를 불구속 입건.

○광씨는 지난 5월 말 1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점퍼와 바지 주머니 속에 속옷과 식음료를 넣어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서구 일대의 대형마트에서 11차례에 걸쳐 모두 80여만 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

○경찰은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점퍼를 입은 채 마트를 배회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마트 직원의 신고로 광씨를 검거.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닷새만에 계기판 고장 신차로 바꿔줘야”

서울고법 판결

승용차를 구입하고서 닷새 만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제조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고 새 차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MW코리아와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가 연대해서 신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

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벌에 6240만원을 주고 2010년형 ‘BMW 502d’를 구입했으나 5일 만에 계기판이 고장나자 판매사와 품질을 보증한 BMW코리아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속도계 결함이 자동차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며 이는 계약 목적의 달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했다.

박람회 관광객 집단 식중독

최근 3일새 수십명 게장 등 먹고 병원 치료

여수엑스포를 관람하기 위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 수십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7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50분께 여수시 여서동도 교회에서 숙박하던 관광객 박모(37)씨 등 24명이 구토와 복통을 호소해 여수전남병원 등 인근 4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6일 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여수를 찾았다 시

내 S식당에서 점심으로 게장백반을 먹고 저녁에는 개벌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대상물을 수거하는 등 정확한 발병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같은 업소인 S식당에서 게장백반을 먹은 11명 이, 6일에는 H식당에서 게장백반을 먹은 4명이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여수시 보건소는 환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여 발병 의심 물질을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게장백반을 판매한 S·H업소 2곳을 이 날짜로 판매금지처분을 내렸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일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어 식당마다 음식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날씨까지 덥고 습해 음식이 쉽게 상하고 있다”며 “현재 거점검체를 채취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한밤중 암초에 부딪쳐 침몰하는 어선의 선장이 해경에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은 7일 새벽 1시53분께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역만도 앞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대양호(4.59t, 고흥선적)에서 선장 김모(46)씨를 구조했다.

전날 오후 1시께 외출뒤사로 삼치를 잡으러 나르도항을 출항한 대양호는 조업 후 역만도 근처에서 휴식하려 닻을 놓았다가 기상이 나빠지면서 닻이 끌려 암초에 좌초돼 침몰했다. 김 선장은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렸고, 여수해경 측이 경비임무 중인 500t급 경비함을 급파, 새벽 2시15분께 선장을 옮겨 태웠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입학문의 ▶ 062-605-1114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2012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과	모집인원	
		수시 1차	수시 2차
인문	신학과	2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6
사범	유아교육과	9	7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6	4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테이스, 색소폰, 작곡, 대위법, 싱어송라이터 등)	20	-
총 계		67	28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자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일반전형】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 2012. 8. 6(월) - 8. 20(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형일

대학원명	학과	필기 및 면접고사
일반대학원	신학연구과(M.A.T.)	2012. 8. 24(금) 오후 2:00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2012. 8. 24(금) 오후 2:00
신학대학원	신학과(M.Div.)	2012. 8. 24(금) 오후 2:00
교육대학원	교육학과(M.Ed.)	2012. 8. 24(금) 오후 2:00

③ 합격자 발표 : 2012. 8. 28(화) 오후 2:00
④ 등록기간 : 2012. 8. 29(수) - 31(금)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정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0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	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유아특수, 초등특수, 상담	0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8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 30-36